

문 대통령 “꺾고 짧은 방역 강화... 빠른 일상회복 위해 전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꺾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적극강조했다.

회의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실세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 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특히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초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개선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에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망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개선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개선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추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개선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

회의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실세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 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320만명에 100만원씩...매출감소 일반사업체에는 내년 1월 초 지급

방역물품지원금은 29일부터...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중소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



작으로 내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소기업은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빠르게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도 기존 집합근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6 최만식기자

SKY대 합격 및 수능만점 필수영어 2개월 단기 완성
예비 高1,2,3 대상
가장 어려운 영어 가장 쉽게 배우는 비법!
수강료 후불제
skymt.kr
지금 바로 skymt.kr을 검색해 보세요
SKY대 쉽게 가는 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경기도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1천억 '금자탑'...공공배달앱 최초

이석훈 대표이사 "주35시간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높아진 점도 목표 달성 큰힘"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 플랫폼'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달성하며 올해 목표액 조기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20일 기준 전국 공공배달앱 최초로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1년 20일 만에 이룬 성과로 올해 목표액인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배달특급은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7일 300억 원 ▲7월 27일 400억 원 ▲8월 26일 500억 원 ▲9월 19일 600억 원 ▲10월 11일 700억 원

▲11월 7일 800억 원 ▲11월 30일 900억 원 발판을 밟으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배달특급은 올해 도내 30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약 4만 5,000개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입점해 60만 명의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누적 주문은

392만 건을 넘어섰다. 착한 소비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단일 지역 기준으로 화성이 누적 거래액 175억 원, 수원 115억 원을 뛰어넘었고, 용인은 일간 기준 최고 매출인 1억 6,000만 원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수수료 단 1% 강점과 함께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시장 안착에 주력했다. 특히 지역밀착·지역특화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를 뒀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를 맺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속적인 앱 개선과 함께 기존 별첨 형태 리뷰 기능을 사진 등 문구 선택형 리뷰로 탈바꿈하는 등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악성 리뷰를 사전 방지하면서도 리뷰를 활용한 자체 프로모션 전개 등이 가능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는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배달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사업으로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과 함께해 주신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올해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올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능률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주식회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대표 공공배달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C
capital area
수도권II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이천시, '22년도에도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민 행복 구현

고양시 고양동 지역,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최종 선정

역사와 미래가 통하는 '높빛 고양(高陽)' 조성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플리마켓 운영 ▲거점 공간(고양동 마을 공작소 등) 조성 등이다. 이로써 시는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성사혁신지구 총 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고양동 지역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고양시는 '역사와 미래가 통하는 높빛 고양(高陽)'사업 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 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부터 1년여에 걸쳐 '고양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덕양구 고양동 233-1번지 일원(약 77,500㎡)에 마을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참여를 통한 자생적 도시재생'이라는 비전 아래 1억 5,700만원이 투입된다. 고양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설립 ▲마을 브랜드 만들기 ▲집수리지원 자문단 설립 ▲고양동 스케치북 제작

광명동굴에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광명해요!

광명도시공사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4시 30분부터 광명동굴 경관광장 주차장에서 '2021 광명동굴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개최함에 따라 콘서트 관람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1 광명동굴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각자의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비대면으로 관람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공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서트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육중완 밴드, 노지훈, 이삼사오 밴드, 튜어라운드 총 4팀이 출연하여 크리스마스를 수놓을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오는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광명동굴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광명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드라이브 인 콘서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명동굴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는 출연진 및 관객 코로나19 음성 확인 및 차량과 무대 방역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 안전에 최우선을 기할 방침이다.



이천시가 2022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4천여만 원 수준이던 사업예산을 '22년은 41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연 평균 2개 지구 내외로 추진하던 사업물량을 '21년도에 10개 사업지구(2,063필지), '22년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로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직원들 각자의 직무능력과 소통을 통한 좋은 팀워크를 이뤄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지축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 등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으므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저누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합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고양시

사각함과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정의로움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기업SOS
이동시장실... (주)SPG수소 방문

윤화섭 안산시장은 국내 유일 수소전문기업 (주)SPG수소를 찾아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지난 7기 취임과 함께 매달 진행하고 있는 '기업SOS 이동시장실'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1년여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방문이다.

이성재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안내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며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수원시, '수원화성 야간관광',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예술경관조명 설치, 야간 상설관광 프로그램, 수원문화재야행,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 등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 한국관광의 별'에서 '수원화성 야간관광'으로 본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2010년 시작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지, 방송 프로그램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다. 매년 본상(관광지) 4개소, 특별상 4개 분야를 선정해 시상한다.

본상은 ▲관광지 자체의 매력이 뛰어나거나 ▲신규 콘텐츠와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거나 ▲관광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 곳 등을 선정한다.

특별상은 3년 이내 신규 관광지 중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프로그램 ▲한국관광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지속 가능성이 높은 관광사업체·관광프로그램 등을 선정한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시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2017년부터 '야간관광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야간관광 거점개발'·'야간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장안문-화홍문 구간과 용연에 예술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야간특화 콘텐츠사업으로 화성행궁 야간개장과 연계한 야간관광 상설프로그램(야간경관조명·인공 달 등 전시물 설치), 문화관광 재현 배우 프로그램(행사 안내, 순라군)을 운영했다.

또 수원화성 일원 곳곳의 야경을 감상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수원문화재 야행'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를 열어 행리단길에 빛의 거리와 포토존을 조성했다. 관광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성안마을 미디어아트전'과 화서문 성벽 미디어파사드·라



이트쇼 등은 포스트 코로나 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은 대규모 야외 도심 관광지로 공간적으로 분산 관람을 할 수 있다"며 "2024년까지 서장대 성곽길·보행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화성의 야간특화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그동안 두 차례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바 있다. 2012년 '수원화성', 2015년 '무예24기'가 선정됐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마을 선정돼

화성시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20일 '2021년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평가'에서 음식 분야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어촌관광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40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총 4개 부문으로 실시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화성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항인 궁평항에 위치해 궁평 낙조와 수려한 해상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다.

특히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을 통

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선보이고, 망둥어 낚시, 조개잡이, 레저보트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불거리부터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휴양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은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해 어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어촌휴식시설 활용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중리동 '사랑 愛 집고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지난 18일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중리동 장애인·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는 컨테이너를 부분 개조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도배가 부분 되어 있지 않으며, 장판이 열에 그을려 검게 변해있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중리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접수리를 의뢰하였으며, 국제와이즈멘 이천클럽은 도배·장판 교체 및 청소 등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인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고려한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도움을 주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국제와이즈멘 이천클럽 서정호 회장은 "추운날씨에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희동 중리동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국제와이즈멘 이천클럽과,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가수 송창식 거리 조성 활성화를 위한 2021 인천 중구 비전공감포럼 개최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중구 제1청 월드컵 회의실에서 '송창식 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지역 브랜드 창출을 주제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2021 중구 비전공감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을 고려해 현장에는 공감마을 주민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 송창식팬클럽 운영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참여했고, '유튜브(YouTube) 인천중구TV'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여 총 200여 명이 포럼에 참여했다.

포럼은 (주)엘플래닛건축사사무소 나관희 대표의 "인적자원과 미래 가치", 추계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서상희 교수의 '대중음악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이후 좌장 김상원 교수(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의 진행으로 나관희 대

표와 서상희 교수, 윤순학 대표(주)와이어반컬처, 김학선(대중음악평론가), 손동혁 실장(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정동준 의원(인천중구의회), 최정현 과장(인천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국내 및 해외 음악가 거리 조성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과 한계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 수립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민·관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 아티스트와 그의 음악 홍보를 통한 전세대 유인, 인근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강력한 배후지 형성, 관 주도의 지나친 관광산업화보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홍인성 구청장은 "다른 지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무엇보다 주민 거주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참여 및 소통으로 송창식 거리를 조성해서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안성시 건축과,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안성시는 2022년 1월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건축과 내에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등에 대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이는 주말체험 영농 등 농업경영 장벽을 낮추고 주민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인 농업용 가설건축물은 농지 내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며,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건축과 건축지도팀 내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

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내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양성화 가능 여부, 신청 및 처리 절차, 이행강제금 사전 안내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면 작성 지원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엄기현 건축과장은 "처분이 목적이 아닌 치유와 해소를 목적으로 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철길숲과 형산강의 만남,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 착공**

포항시는 21일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는 포항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그린웨이 프로젝트 철길숲'사업의 일환으로, 연일을 유강리 제2수원지 정수장(유강코아4차 소재)에서 형산강까지 연결되는 교량이며, 이번 연결사업으로 철길숲과 형산강을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걷는 길 인프라'가 구축된다. 총 길이가 9.3km에 달하는 인도교는 현재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책로로 자리매김한 철길숲을 형산강 상생인도교에 연결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시민들이 철길숲에서 형산강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인도교는 램프구간을 포함해 총 길이 140m, 폭 3m의 보행도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철길숲과 형산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인도교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뿐만 아니라, 포항을 진입하는 7번 국도에 위치해 포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처음으로 아름다운 구조물을 선사할 수 있도록 포항의 로고를 포함한 경관조명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어, 단순히 길을 연결하는 교량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을 통해 철길숲과 형산강 권역이 연계됨에 따라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걸을 수 있는 도시숲 공간이 더욱 확대됨과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걷는 문화의 확산과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노이기자

구미시, '2022년 문체부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 선정

**국가산단 연계한 산업관광
자원화 및 관광도시
브랜드 창출**

구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에 거쳐 서류평가 과정을 통해 본심사에 올라온 5개 후보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미시가 최종선정됨으로써 2022년 국비 1.5억원,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5.5억원의 규모로 산업관광 활성화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구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목구미(耳目口味)', 대한민국 산업화 1969'라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콘텐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미공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어코스로서 구성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



다. '산업관광'은 기업의 생산현장이나 홍보시설 등 재래·전통산업, 과거 산업유산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지역은 브랜드나 지역산업 홍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으며, 어느새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영역이다.

구미시는 지역 제조기업, 대학 등 총 7개 산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라면캠핑축제와도 연계하여 일상에서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산업관광 육성사업 최종선정에 함께 노력한 7개 산학 컨소시엄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교육·체험 중심의 제조업 연계 산업관광 서비스 발굴과 생산제품 전시 판매를 위한 전용 판매장 조성 등 다양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도시 브랜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봉금기자

대구 서구, 2022년 'The 3column' 전시 공모

서구문화회관은 2022년 'The 3column' 전시 참가팀을 2022년 1월 7일까지 지역 작가들에게 공모신청 받는다.

'The 3column'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서구문화회관 전시실 3개의 기능을 중심으로 전경과 벽면에 3명의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명을 정해 자유롭게 전시하는 시리즈 기획전이다.

서구문화회관은 올해 첫선을 보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던 'The 3column'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하여 서구의 대표 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서류와 면접심을 거쳐 최종 선정된 6팀에게는 전시보상금 뿐만 아니라, 홍보 리플릿 제작, 도슨트 운영과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온라인 전시회 제공 등 창작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평면화·설치·조각·영상 등 시각예술 전 부분에 걸쳐 관련분야를 전공한 작가들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서구문화회관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미설 서구문화회관 관장은 "개성

과 창의성이 풍부한 지역작가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작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장동호기자

**안동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공회 모디'
2021년 마지막 모디데이 'Winter Party' 행사 개최**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공회 모디'와 함께 시민 주도로 2021년 마지막 모디데이 'Winter Party'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공회 모디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민 모디학교(기획자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수료생으로 구축된 제1기 예비문화기획자의 주도로 사업을 기획, 실행하여 진행된다.

2021년의 모디의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2022년의 시민공회의 활약을 다짐하는 연말 '아듀 2021 파티'행식의 특색있는 모디데이 진행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12월 21일에 진행되며 ▲1부는 14시~18시까지 개회식 및 라인댄스,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 다같이 모디데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디스토어에서는 아나바다 기부 장터가 14시~18시까지 진행된다. ▲2부는 19시~21시 까지 모디광장에서 무예버스킹 및 무디684의별에 미디어파사드 아트 맵핑, 문화홀에서는 공연 및 소소한 예술품 경매가 이루어 진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부, 2부 나눠 선착순 40명 한정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은 안동문화도시플랫폼 홈페이지 시

민참여란에서 할 수 있다. 시민공회 모디의 관계자는 "이번 12월 연말 모디데이 윈터파티를 통해 모디데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비문화기획자들이 지역 문화인력에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시민공회 및 문화플랫폼 모디684의 안동시민 참여가 확산되어 문화도시 안동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덕자기자



경북도, 산돌배로 임업인 소득원 확보 나선다

경상북도는 21일 오후 산림자원개발원(원장 정철화)에서 '산돌배 고부가가치개발 R&D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산림자원개발원은 2018년부터 계명대학교 식품공학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산돌배 건강기능성 효능평가 및 고부가 제품 개발로 현장실용화가 가능한 상업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 산돌배 알코올성 위염·비만·지방간 개선 특허출원 3건으로 관련기술을 선점하고,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 5.014)에 논문게재로 산돌배 위염 개선효과를 과학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숙취해소음료, 기능성 막걸리 등 고부가 시제품 제작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상업화 롤모델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산돌배가 지역대표 임산물로 자리매김 하도록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과 공격적 마케팅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임

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돌배는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주로 당절임, 건조, 혼합음료 등 단상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강원 인제, 전남 광양에서 주로 생산되나 2016년부터 구미 무을면에 돌배나무 지역특화숲(460ha)이 조성되면서 본격 생산되는 2024년 이후는 주요 생산지 변동이 예상된다.

건강과 '술 마신 티 안내기'를 챙기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숙취해소 시장규모는 2500억원에 달하며, 중국 등 해외시장을 앞 다투며 개척하고 있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햇겨울매가 주도하는 기능성 음료시장에서 틈새 공략으로 산돌배는 새롭고 다채로운 소재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봉금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위해 시정역량 총결집”

자금 문제 해결·비대면 판로 확보·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산업화 전략 마련 등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모색... 지원 효과 및 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 경청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부산시는 오늘(21일) 오전,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케어(동구 범일동 KT타워 18층)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의식업, 휴게음식업,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미용업, 제과업, 목욕장업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듯이 안내하고 버티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전하고, “부산은 경제에 민감한 영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그 경제적 타격은 다른 도시보다 크다”라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

력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결정했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힘써왔다. 또,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안건으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 제22차 회의의 안건을 ‘소상공인 산업화 전략’으로 정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모색해왔다.

특히, 부산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무(無)한도·무(無)신용·무(無)이자 ‘3무(無)’ 특별자금을 5월과 12월, 두 차례 출시하였으며 입차료 특별자금도 기존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 데 이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에도 노력해왔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1조 6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에도 도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판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내년 1월, 공공 모바일마켓 ‘동백톡’이 부산 전역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 가맹비·중개수수료·광고비가 없는 3무(無)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변화도 시도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인프라가 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2022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다. 소상공인 청년고용 일자리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주 제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산업화 전략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시는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소상공인 산업화 기반 마련, 개인·업종·공목상권의 소상공인 브랜드화 지원, 온-오프라인 콘텐츠 확보를 통한 온라인비즈니스 대응력 강



박형준 부산시장,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위해 시정역량 총결집”

화 등을 전략으로 삼고, 지역의 앵커스토어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계별 성장시키고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만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에 실행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정책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

이겠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와 위로로 전한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연합회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단을 꾸려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함께 지키겠다”라고 답했다.

남궁영기자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지역 주민 소통강화에 힘써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장단과 토지보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1·2차 주민설명회, 토지보상협의회, 보상설명회 등 올해 7차례에 걸쳐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보상금 산정은 현재 보상업무를 수탁 중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한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부터 토지소유자와 개별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보상관련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지되는 개별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내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에 농업기술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경남 미래농업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진주시 초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농업기술원 부지는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 초전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전되는 농업기술원은 부지면적 571,000㎡, 건축면적 59,000㎡로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는 1,836억 원(전액 도비)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윤광남/대기자



빅데이터’로 본 올해 의료기기 키워드 ‘김해의생명산업 진흥원, 지역클러스터’ 눈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를 활용한 의료기기 분야 키워드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지역클러스터’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빅카인즈 자체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출력된 결과치로 신문, 방송, 기사 속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언급량(가중치)이 많았던 의료기기 분야 주요 키워드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84.32)와 보건복지부(13.34) 등과 같은 주무부서들과, 코로나 19(57.87), K-바이오(8.8)의 가장치가 두드러져 나타났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5.27),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14.94), 원주(14.88)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방위적으로 활발한 의료기기 기업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펼치고 있는 지역 클러스터가 포함되었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년 연속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주요성과로 수도권 의생명산업 공동 연구 기틀 구축, 강소특구연구소 기업 22개사 전국최다 등록, 김해메디칼실용화센터 개관, 보건의료데이터클러스터 MOU, 입주기업 의료연구 AI 플랫폼 코스타 상장, 김해의생명 창업기업 이산학연소기스별군기 의료기기 허가 완료 등 주목

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에 기여 할 수 있었다.

또한, 산학연병 공동 연구회·기술사업화 연계 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우수 의료기기 발굴 및 사업화 성공률을 증가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중심의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함으로써 김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수도권 병원과 함께 창업기업의 병원 연계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거제 저도! 내년 2월부터 대통령 별장 외곽 관람할 수 있다

거제 저도 내 대통령 별장이 내년 2월 1일부터 외곽관람과 사진촬영이 허용된다. 더불어, 절차 개선으로 당일 입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유일한 휴양지인 탓에 관람과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다. 섬 전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사전 입도 승인 등 관람객 원으로의 현실적 한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관광객들이 꿈는 저도 관광의 가장 큰 매력도 대통령 별장에 대한 관심이며, 잘 보존된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거제시는 저도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별장 외곽개방과 입도 불편 개선에 집중하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대통령경호유관시설인 청와대의 사례와 민통선 출입절차에 주목했다.

거제시는 외곽개방과 입도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청와대 방문 건의를 시작으로 7월의 지도 상생협의체(실무회의)를 통한 관련 기관 설득, 8월 외곽개방 세부구간과 내용에 대한 청와대, 국방부·해군 건의, 10월 입도절차 개선 협의, 11월의 청와대와 경호처의 현실실사 등 쉽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그 동안 접근이 금지되었던 대통령 별장 주변도 들

러볼 수 있고, 사진촬영도 가능해진다. 거제시와 유람선사의 세부 협의를 남겨둔 당일입도도 같은 시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안겼던 저도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한껏 뽐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그간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노력이 있어왔는데 이런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저도 개방선언처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즐기는 남해안 해안관광의 중심지로 저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17일 47년 만에 대통령의 쉼터에서 국민 모두의 쉼터로 돌아온 저도는 그동안 8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 기간 동안 거제시는 관광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저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역대 대통령 기념공간(조형물) 조성사업, 전담대 리모텔링 공사와 탐방편의 증진을 위한 관람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군정비기간인 1월과 7월, 매주 수요일은 저도 개방협약에 따라 입도가 제한된다.

강영훈/기자

하동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동참 열기 후끈

하동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추진하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각계각층의 후원금 기탁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주사랑어린이집 일동이 8만 7000원, 최인용 하동고등학교 교장이 10만원, 한국부인회 하동지회가 20만원을 기탁했다.

14일에는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가 2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30만원을 보내왔다. 15일에는 하동군인업후계자지회가 1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20만원, 하동초등학교가 42만 4000원, 하동군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가 50만원, 고전면이장협의회가 1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날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에 발전소 주변 고전·금남·금성 3개면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지원을 위해 장학금 1440만원을 기탁해 30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지원 예정이다.

또한, 지난 15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하동군이 후원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

고자 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 2943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 하동군지부가 20만원, 하동군수협이 50만원, 하동축산농협이 50만원, 하동군산림조합이 30만원을 내왔다. 노인회 하동군지회가 10만원, 하동문화원 20만원, 이양호 하동군장학재단 이사장이 100만원, 이양성 하동군 기자협회장이 5만원,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만원, 행정동우회 10만원, 칠불사 도음 주지스님이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 사회단체의 동참도 이어졌다. 새마을하동군지회가 15만원, 새마을부녀회가 15만원, 생활개선회가 30만원, 바르개살기운동협의회가 30만원, 하동군축산연합회가 20만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수협부녀회가 20만원을 후원했다. 재향군인회가 30만원,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가 30만원, 지체장애인연합 하동군지회가 10만원, 한국예총하동지회가 10만원, 하동군어린이집연합회가 30만원을 내왔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뜻을 함께 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이 70만원,

섬진강사랑의집이 38만원, 하동요양원이 20만원, 하동군성가총상담소가 10만원, 하동지역자활센터가 30만원을 기탁했다.

건축사무소 성림 임동민 소장이 20만원, 건축사무소 오름 박병운 건축사가 20만원, 추재성 고전면발전협의회장이 5만원, 하동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일동이 2만 4000원, 하동군산불전문진화대 3조대원 일동이 30만원, 하동읍 1조 진화대원 일동이 30만원, 익명의 기부자가 12건 37만 2000원을 기부했다.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공무원도 심시일만 마음을 모아 1006만 5000원을 내렸으며, 13개 읍·면에서는 ‘사랑의 열매 판매’ 등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모아 모금한 858만 9000원을 기탁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을 추가로 기탁 예정이다. 양상기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내년도 인구정책 추진 박차



산청군이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 내년도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군은 조형호 부군수 주재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서면 인구정책 간담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위원회 실무추진단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서면 간담회에서는 올해 인구정책사업 추진실적과 2022년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2022년 추진사업인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자녀→2자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귀농·귀촌 지원 등 분야별 인구정책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정부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신규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견도 들었다.

조형호 부군수는 “우리 군은 인구감소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 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행안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전남도 1위

여수시, 조발해오름언덕에 섬섬여수 힐링쉼터 '더섬' 조성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화순군 능주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 마을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80곳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9개 분야 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전국 280개 정보화마을 중 5위, 전남 39개 정보화마을 중 1위를 차지해 행안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비대면 판매 확대·SNS를 통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에서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산물 판매를 연계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외에도 자립운영 노력도, 역량강화 노력도, 상품 개발, 홍보,

정보격차 해소 등 지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마을 주민과 지역이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더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이 지역의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목포시, 2022년 목포오품맛집 143개소 지정

목포시가 '2022년 목포오품맛집' 143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특색있는 별미요리, 위생관리 상태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으뜸맛집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목포오품맛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 선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공개모집에 접수한 총 40개소 중 행정처분이나 신청자격 결격사유 조항 등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맛, 향도성, 서비스, 위생, 분위기, 영업절차 등 6개 항목에 대한 2차 현장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으뜸맛집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으뜸맛집에 대한 사후 점검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식품위생 업무 전문 감시원과 함께 공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전수 조사와 재점검 등을 통해 2개소를 으뜸맛집에서 제외했다. 시는 매년 으뜸맛집 사후점검을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으뜸맛집이 목포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대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품맛집은 목포의 맛을 대표하는 업소이다. 맛이 목포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전남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나주 (주)사조원

2018년부터 4년째 선정...오리 도축장 위생·안전관리 최고

나주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나주공장이 한국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온라인 시상식에서 오리를 도축하는 (주)사조원 나주공장이 닭·오리 부문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조원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 도축장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이 최고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사조원은 1965년 나주 금천면에 회사를 설립한 후 닭·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삼계탕, 오리 훈제 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정한다. 상위권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가 현장 점검해 베스트 도축장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도내 21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132개 업체를 평가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소비자도 전남산 가금육을 믿고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완도군, 2021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성료

완도군이 올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12월 8일까지 73회 운영했으며, 3,752명이 참여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236회 운영, 17,531명이 해양기후치유를 했다. 특히 올해는 계절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대상자별 프로그램은 치매 경증 어르신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 도서 읍면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종류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다양화했다. 기존의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싱잉 볼'(singing bowl)을 활용한 소리 명상, 파도 소리 명상, 마음 표현하기 명상, 맨발로 모래 걷기 명상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우울했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치유 체험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치유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78.9%로 가장 높았고, 근육통 완화 27.8%, 관절통 완화 19.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서는 적극 참여가 85.7%, 생각해 보고 참여가 13.1%였다. 참가자 A 씨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너무 행복하다", 참가자 B 씨는 "깨끗한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해풍을 맞고 햇살을 받으며 운동을 하니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해양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숙박을 하며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관광을 통해 힐링 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율/기자



유 체험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치유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78.9%로 가장 높았고, 근육통 완화 27.8%, 관절통 완화 19.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서는 적극 참여가 85.7%, 생각해 보고 참여가 13.1%였다. 참가자 A 씨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너무 행복하다", 참가자 B 씨는 "깨끗한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해풍을 맞고 햇살을 받으며 운동을 하니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해양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숙박을 하며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관광을 통해 힐링 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율/기자

남원시
| 남원에촌 |

쉬고, 여유 남원에서 만나다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전라북도 송하진도지사,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에서 입지 더욱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분권

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송 지사의 정치적·정책적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역대 위원장 관련)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자문 등을 처리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 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써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로 연인시도지사협의회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측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을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박사 논문을 보완해 발간한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우법(공저자 김영평)」으로

자치단체장 최초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깊다.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인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도 송 지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의 지방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누리는 데에도 노력 중이다. 특히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은 송 지사의 큰 관심사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써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A

area

호남 II

문화매일 11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진안군,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우수사례 선정 쾌거

진안군이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1년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진안 문화유산탐험대(진안고원 숨은그림 찾기)'가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2021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선정돼 시범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43개 프로그램 중에 우수사례로 뽑힌 8개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진안군이 추진한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진안 문화유산탐험대(진안고원 숨은그림 찾기)'는 머지큐브(증강현실), 진안고원 승람도놀이 등의 교구재를 개발하고, 진안역사박물관, 관내 무형문화재(진안고원형용기장)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프로그램 보조강사로 활용해 지역 친화적인 사업으로 운용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2023년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에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향후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공모해 지역유산을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작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생생문화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공모에도 연이어 선정되어 2022년도 생생문화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출범 CI 공개

(재)부안군문화재단에서 재단 CI 개발 공모전 대상 수상작(수상자 이석곤)을 수정·보완한 최종 CI를 12월 21일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 10월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비전을 상징하고, 역사문화와 관광도시 부안의 브랜드를 담아낼 수 있는 CI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30여 점의 출품작 중에서 심사위원이 선정한 4점의 우수작을 대상으로 부안군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할 CI를 결정한 바 있다.

재단에서 공개한 이번 최종 CI는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 서해안 노을과 부안 들녘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상을 담았다. 서로 다른 물방울이 섞여 어우러진 모습은 재단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군민, 모여드는 세계인, 문화예술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존재적 가치를 높임을 형상화한 것이다.

아울러 한글로 구성된 로고타입은 글자 자체가 하나로 이어진 독특한 모양새다. 공모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로고타입 그 자체로 하나의 심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서로 다른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예술로 하나된 부안군을 만들어 심벌마크에 담긴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안군문화재단 CI

2022 CI Logo Symbol
2022 CI Basic Color System

부안군 문화재단
Buan Cultural Foundation

이선수/기자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 개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VR·AR제작거점센터에서 2021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지원한 기업들과 함께 실험형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 콘텐츠를 체험·소개하고 최신 콘텐츠 트렌드와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가트렌드, 메타버스'와 'K-뉴딜 인사이트'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구인·구직자의 만남 '취업특톡' △1인 셀러, 실시간 라이브 방송 △3D펜 랜선클래스 등을 통한 3D프린터 온라인 체험 등이 있다.

컨퍼런스의 경우 1일차에는 전화성 씨엔테크 대표와 박진영 엔드라이프 대표, 최은석 디스트릭트 부사장,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메가트렌드, 메타버스'를 주제로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연다. 2일차에는 김필수 네이버 리더와 심인별 KBS 기술감독, 신정현 단국대학교 교수, 신상희 가이아3D 대표가 'K-뉴딜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구인·구직자의 만남 '취업특톡'은 구인·구직자간 1:1 심층상담과

온라인 토크쇼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의 경우 1일차에는 VR·AR 분야 △코코야비전 △(유)나인펄스 △솔루션뱅크플러스 △(주)에스지오 코리아 등이, 2일차에는 스마트미디어·3D 분야 △올몰스튜디오 △(주)연우 △가넷 △두이엔지(주) 등이 구직에 나서며,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인셀러,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 한복제작기업인 '리솔'이 네이버 라이브쇼핑을 활용해 '오, 한복한 인생'을 테마로 한복판매와 성공스토리를 소개한다. 지역 대표 뮤지션 그룹인 '이상한계절' 밴드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과 앨범 판매도 이어진다.

첫 날 행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장은 전주시 라이브커머스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라이브 방송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북VR·AR제작지원센터 내에 조성된 XR스튜디오에서 실험형 콘텐츠를 개발 중인 중소벤처 개발사와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XR 관련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올 한해 지역에서 제작·지원

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해 공유하는 이번 자리를 통해 전주의 우수한 콘텐츠 기술과 기업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 관련 기업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일/기자

익산 친환경 쌀, 판로 확대 '승승장구'

익산시 친환경 쌀이 서울 학교급식, 대기업 원료곡 납품까지 연달아 선정되며 판로를 확대해가고 있다.

시는 탐마루 친환경 쌀이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에 선정돼 내년 3월부터 2년간 두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1천여 톤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CJ(씨제이)에 연간 익산 친환경 유기농 쌀 150여 톤 공급,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 600여 톤 공급에 이은 익산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이룬 쾌거다.

이를 통해 시는 환경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익산의 친환경 쌀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입찰에 참

여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2차 현장평가에서는 학교급식 현지실사팀을 맞아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적극 어필하며 최신크 친환경 쌀 전용 도정 라인과 체계적인 품질관리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7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3차 평가(품평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취소되면서 1차,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해 익산 친환경 쌀이 은평구, 성북구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CJ(씨제이), 수도권 학교급식 등에 원활한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해 내년에는 250ha 규모의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을 계기

이선수/기자

남원 산간·구릉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급 완료

남원시에서는 그 동안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상수도 생활용수(식수)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질관리가 열악한 산간·구릉지역의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 전라북도 등을 방문 건의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지역은 남원시 운봉읍 추촌마을의 15개마을 491가구이며,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생활용수의 수질악화와 수량부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보다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구축하였고, 올해 대부분 급수공급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

다. 또한, 남원시 관계자는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광역상수도 관로매설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체증, 소음, 비산먼지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급수계획(2022년)으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남은 독립된 마을(가구) 급·배수관로 5개마을 L=3km와 계량기설치 4개마을 140가구정도를 추가로 급수공급 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생활용수(급수)공급이 열악하고 수질, 수량 등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이남출/기자





대전광역시, 제2시립도서관 건립 본격 착수... 기존 건축물 철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35㎡ 규모, 290억 원 투입... 2024년 3월 개관 목표

대전광역시가 민선 7기 대표적인 약속 사업인 '제2시립도서관'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동구 가양동(현)가양도서관 부지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교육감, 황운하 국회의원, 황인호 동구청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시립도서관' 건립 착수를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영상은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블루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대전시는 도시발전으로 신·구 도시 간 인구와 문화 쏠림현상으로 신도시심은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체육 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로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감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왔다.

이에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정선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콘텐츠 개발 업무 협약식 개최

3YO(살드레요! 놀드레요! 팔드레요!) 프로젝트 추진

정선군과 ㈜비타민TV는 21일 정선군청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허주민(㈜비타민TV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콘텐츠 개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은 대표 관광브랜드인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5일장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정선아리랑 마을 조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을 신청해 지난 2020년 3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을 11월에 완료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마을여행 활성화를 위해 매입한 정선읍 봉양리 소재 유휴 건물에 대해 ㈜비타민TV에서 리노베이션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 운영, 다양한 관광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액커

시설로 명소화하고 정선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3YO(살드레요! 놀드레요! 팔드레요!)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침체된 지역 관광지 주변의 유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을 연예인이 직접 참여하여 방송으로 제작할 예정이어서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혜영기자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따른 '강릉' 브랜드를 지켜라



중국내 무단선행의심심상표

강릉시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 '강릉'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한국 특허청에 해당)에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표침해 사항은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특허청 등록된 상표'강릉'을 중국 식품회사가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의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상표등록기관)에 '강릉'상표를 무단 등록을 추진하여 오던 중 국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에 강릉 상표 침해(20년 8월)사실을 확인,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릉시의 승소를 결정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승소 판결 이유로 '강릉'은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강릉시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며, 국제적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지며, 강릉시는 중국 업체가 강릉 상표를 침해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18동계올림픽개최에 따른 국제도시로의 위상과 국제 언론매체 기사에 따른 인지도 상승을 주요인으로 꼽으며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범용으로 前대회 비상 주 개최도시의 강릉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KTX개통에 따른 국내 여행 핫플레이스로서의 명성이 높은 부분도 있다고 본다. 커피도시, 인피니티호텔 인프라, SNS의 높은 노출빈도, 창의적 로컬콘텐츠의 매력과 지역배경 영화 및 드라마 등의 다각적인 요인으로 강릉을 방문하는 젊은 여행객들과 국내 거주 중국 여행객들을 통해 중국 내에도 강릉시가 젊은 도시로서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행사 및 대회개최 예정에 따른 강릉 인지도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다. 3회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 22년 7월 개최예정인 강릉세계합창대회, 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에 의한 결과라고도 보고 있다.

강릉시는 추가적인 '강릉'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중국 내 국가 지식재산국에 '강릉'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 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철원 김화읍 '어흥이 연말연시 희망의 불을 밝히다!'

철원군은 최근 김화읍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화강 다슬기 소망등공방 골재팀, 한지팀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2M 높이의 조형물 어흥이(호랑이)와 쉬리·다슬기 등으로 김화읍 희망의 불빛거리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원군은 2022년(壬寅年)의 상징동물인 호랑이는 김화읍에 얽힌 전설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은 평강 일대 가장 유명했던 김화 성제산 서낭당과 연관돼 있다. 옛 관노의 꿈에 여인이 나타나 사당을 지어달라고 부탁해 사당을 지었는데, 김화현감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사당에 치성을 드리는 것을 금치하니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현감 아들을 잡아 갔고, 후임 현감부터 다시 제사를 올리게 했다는 설화이다.

이를 계기로 김화읍은 호랑이 조형물을 김화읍의 마스코트로 자리매

김해 연말연시 김화읍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등 점체된 지역 상징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중현 김화읍장은 "수작업으로

이세나기자



충청남도, 반부패 청렴 시책 우수기관 4개소 선정

도시군출연기관등평가... 청양군·공주시·부여군·서산의료원 '우수'

충청남도는 21일 '2021년 반부패 청렴 시책 평가'를 실시해 청양군 등 4개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살피고 우수한 청렴 정책을 공유·확산코자 추진했다.

평가 대상은 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천안·아산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과 참여 의향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7개소다.

도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여부,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등 14개 지표별 평가를 진행했으며, 우수기관으로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서산의료원을 최종 선정했다.

청양군은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청렴 정책 참여 확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3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평가 전체적으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행,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의 지표가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수기관 4개소에 표창을 수여했으며, 반부패 청렴 정책 유공자로 서산의료원 기관장 추천을 받은 직원 유용원 씨를 선정해 함께 포상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내년에 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과 청렴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등급 2위를 기록했으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 6년 연속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했다.

최정근기자



영동군, 내년 본예산 6,317억원 확정, 올해보다 20.9% 증

내년 영동군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0.9% 증가한 6,317억원으로 확정돼 사상 첫 본예산 6,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군은 지난달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5,226억원보다 1,090억원(20.9%)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에 힘입어 연간가용 가능한 세입예산을 적극 편성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 6천억시대를 개막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 첫 1천억을 돌파하는 과감한 투자가 돋보이며,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군'으로의 도약 전망을 밝게 했다.

내년 추경예산까지 반영되면 최종 예산은 7천억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선제적 대응,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박세복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와 국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4,746억원보다 928억원(19.6%)이 증가된 5,674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단일 분야로

는 가장 많은 1,122억원으로 19.8%를 차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한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상승한 18.1%에 이른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06억원, 세외수입 124억원, 지방교부세 2,825억원, 조정교부금 215억원, 국·도비보조금 1,808억원, 내부거래 396억원이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425억원(7.5%), 공공질서및안전 380억원(6.7%), 교육 53억원(0.9%), 문화및관광 578억원(10.2%), 환경 387억원(6.8%), 사회복지 1,122억원(19.8%), 보건 102억원(1.8%), 농업해양수산 1,025억원(18.1%), 산림·중소기업 80억원(1.4%), 교통및물류 192억원(3.4%), 국토및지역개발 490억원(8.6%) 등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9.6%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환경분야가 444억원(69.0%)으로 단일 분야에서 최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분야 3억원(0.4%), 교통및물류 52억원(8.1%), 국토및지역개발 122억원(18.9%)의 총 643억원으로 올해 480억원보다 163억원(33.9%) 증가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영동군 홍보관문(매곡, 용화) 설치 18억원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설 15억원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

차장 확충사업 15억원 △영동사람상 품격 발행 및 운영 11억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10억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6억원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 37억원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38억원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 사업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소계천 외 3개소) 71억원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36억원(주곡리 외 14개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기반조성 53억원 △웰니스 조경수길 및 사면정비 사업 20억원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10억원 등이다.

또한 주요 보조사업으로 △초강진 병벽장관광명소화사업 48억원 △노인일자리지원 61억원 △기분향 공익직접지불금 126억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8억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5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한석 외 3개 지구) 91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마산 외 3개 지구) 100억원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공사 68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영동읍 외 2개면) 12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9억원 △영동체육공원조성사업 69억원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40억원 등이다.

김원호기자



최정근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자랑스러운 경기도박물관인상' 공로상 수상

성남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새경기도박물관협회)가 주관한 '자랑스러운 경기도박물관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수정구 신흥동에 '성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박물관 건립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기 위해 2018년과 2019년도에 12차례의 공론장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39명의 시민 워킹그룹이 8차례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박물관 프로그램과 공간을 기획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

례(2019.5.13)'를 근거로 시민 활동가와 함께 도시역사문화 자료도 수집 중이다.

현재 사진, 동영상, 음원, 건축 도면 등 9000여 점의 자료를 수집한 상태다.

관 주도이던 박물관 건립 방식을 깨고 '시민참여형'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별도로 열리지 않아 은 시장은 등기우편으로 공로패를 12월 20일 받았다.

(새경기도박물관협회는 2005년부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한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학예사, 유공자를 선정해 올해로 17번째 '자랑스러운 경기도박물관인상' 수상자를 시상했다.

이성욱기자



신스틸러 배우 조재윤, 용인시에 5천만원 상당 생필품 기탁

백군기 용인시장 '선한 영향력' 널리 전파해 달라

영화와 드라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조재윤 씨가 용인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조재윤 씨는 21일 용인시청을 직접 방문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김치, 물, 디퓨저, 떡볶이 키트 등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생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용인시 취약계층 지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재윤 씨는 "도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흥행무진 활약하고 있는 조재윤 씨의 따뜻한 선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나보다 남을 더 위하고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윤 씨는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남양주시의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 1000kg과 마스크 4만8000장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백군기용인시장이21일취약계층을위해5000만원상당의생필품을기탁한배우조재윤씨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

광명도시공사, 초등학부모폴리스 공유유산 전달

광명도시공사는 광명경찰서 초등학부모폴리스와 협력하여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전과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광명시 초등학교에 공유유산 1,000개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유산은 ▲우천 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 ▲감작스러운 우천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불필요한 우산 소비 방지를 통한 자원 재활용 ▲사용과 반납, 재사용의 체계를 통한 공유경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공사와 초등학부모폴리스는 지난 2019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유

산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공유유산과 우산꽂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초등학부모폴리스는 배포된 우산의 회수 및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박중서 부부장은 "공유유산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한 사업이다"라며 "학부모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2021년 구미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 선정



구미시는 탁월한 역량과 혁신적인 활동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한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 구미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를 선정하였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구미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 선정은 한 해 동안 지역산업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기업육성 시책으로, 최고기업인은 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부문 각 1명, 최고근로자는 남, 여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는 올해 11월초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자 접수를 거쳐 12월 13

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최고기업인의 경우 기업경영상태, 지역산업발전, 복리후생 등의 공적을 중심으로, 최고근로자는 동일분야 근속,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 기여도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를 거쳐 2차 심사위원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되었다.

올해 최고기업인상 대·중견기업 부문은 ㈜백셀 박훈진 대표, 중소기업 부문은 ㈜코리아스타텍 김부일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남성 최고근로자는 ㈜보백씨엔에스 엄기덕 팀장, 여성 최고근로자는 GH신소재㈜ 박미라 매니저가 선정되었다.

최고기업인 대·중견기업 부문 ㈜백셀 박훈진 대표

(㈜백셀은 1978년 국내 건전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건전지 전문업체로 2차 전지, 보조배터리, ESS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 관련 디바이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박훈진 대표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이모빌리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매출 신장 및 수출 증대를 이루어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무교섭 임금단체협약 체결, 마스크 기부 등 근로자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최고기업인 중소기업 부문 ㈜코리아스타텍 김부일 대표

(㈜코리아스타텍은 2003년 창립한 세라믹코팅, 반도체 정밀세정 전

문 업체로 플라즈마 용사기술 국산화 성공으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김부일 대표는 외투단지 입주 1호 기업으로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축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 부문 ㈜보백씨엔에스 엄기덕 팀장

각종 절연체 전문 제조업체인 ㈜보백씨엔에스의 생생팀에 재직하면서 본인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조건 최적화, 제품검사 자동화 도입 등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사원들에게 본인의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근로자 부문 GH신소재㈜ 박미라 매니저

산업용 부직포 및 섬유소재 전문 여성 연구 인력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정부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클린룸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매출 향상 및 해당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최고기업인 및 최고근로자는 2022년부터 3년간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각종 문화 체육행사 예우 등의 특권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31일 시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봉규기자

영양군, 한국농어촌 · 청송영양지사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영양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12월 21일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청송영양지사 최은석 지사장은 "영양군의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영양군 지역 발전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1990년 청송군에 설립되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안효선 자치행정과장은 "영양군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동참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전국 최초' 공익소송 지원 조례 상복 터져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등 수상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에 선정됐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 선정됐다. 공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좋은 조례로 선정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조례는 심급별 1,000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소송비용을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이 인정됐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시행사 부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에 나선 송정 숲안에2차 아파트 16가구에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성과도 강조했다.

공병철 의원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만으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

이 많다"며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다수의 구민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법제처가 주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산구가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덕윤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13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이상의 함평군수, 재임기간 급여 전액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가 1년 9개월 동안의 급여 1억6천만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에 기탁했다. 지난해 군수 취임 후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오로지 군민에게 봉사만 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몸소 실천해 관심을 모은다.

함평군은 20일 "이상의 군수가 이날 1년 9개월 재임기간 급여 1억6천여만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무보수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하며 급여 반납을 약속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재임기간 동안 월급과 수당 등 급여를 군세입세출회계로 계좌에 보관해 왔다.

한편,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은 1993년 8월 범군민 애함운동으로 각계 각종의 모금운동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함평군은 인재양성기금으로 매년 함평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216명(상반기 102·하반기 114)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함평군은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 등 장기적 재일대편을 위해 2030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학우, 사회단체, 군민 등 다양한 참여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군수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수직을 수행한다고 다짐하고 급여 반납을 했다.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쓰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학금 조성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식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의원,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화성시의회 배정수의원(동탄4~동탄8)이 지난 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배정수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후보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도시건설·주거·교통·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6건의 조례 제·개정과 8건의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배정수 의원은 "항상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더 나은 자세로 구민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의정부시,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 개최!

의정부시가 12월 18일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은 바둑문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바둑메카 의정부,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홍보를 위해 열렸다.

올해 7월 바둑 콘텐츠 공모전 실시, 8~9월 바둑 인스타툰 제작, 10월 공모작품 야외전시회, 바둑 유튜브 제작, 12월 웹드라마 제작, 바둑 체험교실 진행, 바둑인사 토크쇼 개최 등 5개월간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해온 바 있다.

이날 바둑 페스티벌은 공모작품 전시·소개와 시상, 바둑 체험교실, 바둑인사 토크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메인 행사인 토크쇼에는 세계 1위 프로기사 신진서 9단, 국가대표 코치 박정상 9단, 한해원 3단과 개그맨 김하도, 칼럼니스트 김태훈, 바둑 전문기자 정아람, 한게임 기획팀 장 송은영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일중어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바둑,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바둑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바둑계 전반에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기원이 이전하고 바둑 전용경기장이 건립되는 의정부시에



서 펼쳐질 바둑 르네상스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둑의 미래를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오늘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이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어 앞으로는 물론 아마, 생활 바둑까지 활성화하고 바둑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은 기존 대국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

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채로운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둔 젊은 감성의 행사로 호평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은 올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는 2022년 4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 바둑 신에 단체인 등 다양한 바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부산시, 수출기업인 축제 '부산 무역의 날' 행사 개최

부산시는 오늘(20일) 오후 4시에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우수 수출기업을 발굴·시상하여 수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58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오늘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수출 기업대표 및 유공자, 수출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수출대상, 우수상 및 정부포상 등을 포함해 총 1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올해 부산수출 대상에는 에스엔티모티브(주) 김형철 대표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코리노스 정기용 대표, ㈜바이오포트코리아 김성구 대표, (주)그라미프로젝트 송상운 대표가 받게 됐다. 수출유공자로는 에스엔티모티브(주) 권형순 전무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또한,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수출에 힘쓴 47명의 무역인(산업훈장 3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5명, 산업부장관 표창 29명, 한국무역협회장 표창 6명)에게 정부포상과 무역협회장상이 전수되며 수출 2억 불을 달성한 (주)동성화인텍 등 97개사에 대한 수출탑 전수식도

개최된다. 부산수출대상에 선정된 에스엔티모티브(주) 김형철 대표는 "우리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부품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각 사업의 수출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며, 더불어 최근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질적 성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산지역의 수출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든 것도 무역이라며,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 발굴, 수출 다변화와 판로 개척 등에 있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기업 성장의 기회, 홍보의 장으로 세계박람회 활용을 수 있도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도 전했다.

남영기기자

넷플릭스 '지옥' 전시행사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지옥' 관련 전시행사를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 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행사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내 스튜디오(영상특수효과타운) 두 곳에서 약 5개월간 주요 장면이 촬영된 점을 활용하기로 대전시와 넷플릭스와 협의하여 추진하게 됐다.

행사는 '지옥'의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형 '지옥사자 피규어' 3종(높이 2.7m)과 '새진리회 의장' 흉상(높이 1.8m) 등을 무상 임차하여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대전 특수영상 인프라 우수성과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특수영상콘텐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행사장인 엑스포시민광장은 정부대전청사, 한밭수목원, 한빛담, 야외스케이트장, 아파트 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있어 평소 방문객이 많은 크리스마스 및 설날 등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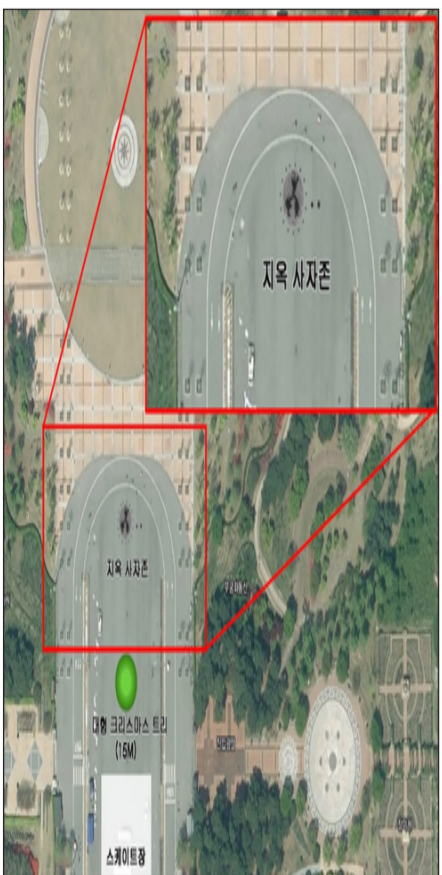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2월 15일 까지 약 한달 간 서울 코엑스에서 '지옥' 관련 콘텐츠 체험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체험존 전시행사는 대전시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대전에서 촬영된 점을 넷플릭스에 꾸준히 강조하여 이루어진 만큼 시민들에게 특별한 체험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전에서 촬영되는 다양한 K-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은 "전시기간 동안 행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관리에 최대한 신경 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경기도, 1월 7일까지 2022년 경기관광축제 시군 공모...비대면 등 안전한 축제 추진

경기도가 내년 1월 7일까지 '2022 경기관광축제' 20개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등 안전한 축제 개최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수 지역축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매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기관광축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축제 선정과 지원 방향으로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개최, 축제 현장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가족 등 소규모 그룹 단위로 현장 분산 방문을 유도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방문 인증 도장) ▲현장 미션을 포함하는 온라인 공모전 ▲드라이브스투(차량 통과) 방식의 농산물 현장 판매 ▲무인 키오스크(단말기) 매표 방식을 활용한 소

규모 현장 체험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한 현장 실내 공연 등을 축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는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3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주도로 내년도 경기관광축제 2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 효과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개최했는지, 지역 관광진흥과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개최 실적도 비중 있게 고려한다.

이렇게 선정된 축제 중 상위등급 6개는 축제별 8,000만 원씩, 중위등급 8개는 축제별 6,000만 원씩, 하위등급 6개는 축제별 4,0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해당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

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시·군과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 아울러 2023년도 경기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연중 진행하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장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축제 핵심 프로그램 개발과 문제점 개선을 유도한다.

축제 기간 도와 시·군은 현장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자 개인이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내년 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종로구 '인디 페스타 밴드 온' 21~22일 온라인 생중계

종로구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온라인에서 '인디 페스타 밴드 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공연의 즐거움, 무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기획했다. 종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7:00~22:00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먼저 12월 21일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표하는 응원곡 'Go West(원곡 펫삼보이즈)'를 선보인다. 인디신을 대표하는 밴드 '레인지본'이 출연을 확정된 상태다. 최정상급의 라이브 실력을 자랑하는 레이 지본은 이미 다수의 클럽 공연과 페스티벌에서 그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무대 위에서 서커스 광대처럼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오리엔탈 쇼커스'를 비롯해 하드록과 헤비 메탈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선보이는 실력과 밴드 '베드렘', 다양한 이들의 감성을 노래하는 '감성골목', 새 이름으로 활동에 나선 '포장마차' 등이 21일 공연을 책임진다.

이어서 22일 두 번째 날에는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밴드 크라이넛이 '인디 페스타 밴드 온'을 찾는다. 크라이넛은 90년대 '말달리자' 이후에도 꾸준히 '맘이 깊었네', '룩셈부르크', '명동콜링' 등 여러 명곡을 발표하며 음악성을 크게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브라스 위주 사운드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킹스턴루디

스카', 희망과 긍정을 노래하는 밴드 '넙버넙코리아', 강력한 기타 사운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기멘탈',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메시업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한다두'가 출연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 관련 더욱 자세한 정보는 종로문화재단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를 만나기 어려운 요즘과 같은 때 찾아온 단비같은 온라인 공연"임을 강조하면서 "공연이 주는 에너지와 기쁨을 맞출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원도 크리스마스 소비주간, 강원장터 고객감사 경매 이벤트

강원도가 오는 12.20부터 22까지 3일간,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 유튜브 채널 '강원장터TV'를 통하여 '2021 강원장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강원장터 온라인 경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 이벤트는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였던 상품 중 인기상품과 도내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선별하여 꾸러미로 구성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12.18~12.26)' 중에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매상품은 10만원에 상당하는 꾸러미별로 매일 40개씩 판매되며 경매참가자는 유튜브 채널 '강원장터TV' 채팅창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참가자들에게는 참여

인증샷과 댓글 이벤트를 통하여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경매 이벤트'를 통하여 참가자는 도내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경매 수익금의 복지기관에 대해 기부 될 예 정이어서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문화에 동참 할 수도 있다.

박광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그동안 '강원장터TV'로 도내 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여 주신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단순 경매가 아닌 소외계층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벤트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금천구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탐방 맛집'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급부상

금천구 시흥1동에 있는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탐방 맛집'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서대문구청 도서관정책팀이, 올해에는 5월 서대문구 문화재단, 11월 양천구 주민자치회가 우수사례 탐방을 위해 방문했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은 2020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우수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과정이 각종 보도 매체와 이용주민들의 개인 블로그 등 SNS에 소개되면서부터다.

시흥1동주민센터 5층에 위치한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다름을 존중하는 상호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운영해왔다. 또한 다양한 장소 개발은 물론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해소에 앞장서 왔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채우고 비워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누리자'라는 의미의 채비누리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매 주 주제에 맞춰 선정된 책을 읽고, 각자의 내면을 돌아보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책과 미술을 접목한 '채비누리-미술편'을 운영했고, 올해 10월에는 책과 식물을 접목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채비누리-식물편'이 진행됐다.



그 외에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여라 지구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독창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강원 로컬벤처기업'에 펀드자금 집중투자

강원도가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야심차게 시작했던 '강원 로컬벤처기업'의 성공 운영 지원을 위해 펀드(투자조합)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소풍벤처스와 펀드(투자조합)를 조성·운영 한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1단계로, 올해 2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내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0억 원 규모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투자금 20억 원은 10억 원, ㈜소풍벤처스와 민간투자자 등이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12월21일 투자조합 결성총회(비대면)를 개최, 연내 투자조합 등록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할 투자금 20억 원은 현재 2~3개 민간기업과 출자협의를

진행 중으로 기업 내에서 출자심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펀드 운용은 강원도 소재 유일한 전문투자사인 ㈜소풍벤처스가 맡게 되며, 3분기 출자한 금액(10억 원)의 2배인 최소 20억 원 이상을 도내 로컬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투자생태계가 기술기반 기업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로컬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에서 소외되었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로 로컬벤처기업에 투자금이 물꼬가 트이고 강원도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로컬벤처기업 이외에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중소·벤처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농식품 산업 분야의 창업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원/기자

김해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구매 물품 지역아동센터 전달...다음 주자 거제시 지목

김해시는 지난 17일 「함께해요」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온라인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다음 캠페인 참여 주자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경남은행 'BNK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과 병행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구매 물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김해시는 현재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인 '동네시장 장보기'도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는 외동·삼방·동상시장의 10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각 시장의 반경 2km 이내 지역은 온라인 주문을 통해 2시간 이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석기 부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다음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거제시를 지목했다.

최광웅/기자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매정 예정.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공업지역을 매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경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매정하는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의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 4 차 수도권 정비 계획(2021~2040)'은 시도시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매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거쳐 남양주 48만3천㎡, 화성 8만2천㎡ 용인 7만㎡ 등 총 63만5천㎡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천㎡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천㎡, 북부 153만9천㎡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뒀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조혜영/기자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와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가 몽쳐 대중교통비 최대 70% 절감, 시민체감도 UP

부천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챌린지 참여기업인 데이터얼라이언스(주)와 협업체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 알뜰교통카드(도보, 자전거 등)와 함께 '공유전동킥보드(킥고잉)·공유전자전거(일레클)·공유차(위클리)·주차공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합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배출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15일 지급대상자부터 마일리지 적립 조건을 확장해 시범운영중이다.

금번 시티패스 마일리지 혜택 개선의 주요 내용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기존 최대 20%에서 40%인 두배로 확대하였으며, 기존 대중교통과 공유교통수단 간 환승 적용 시간을 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결제수단 범위도 시티패스 포인트 결제(충전을 통한 선불)에서 신용카드 결제(후불)까지 확대하였다. 스마트 시티패스 앱(교통서비스)에서는 이외에도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한 교통소통정보를 반영한 최적경로 안내서비스, 시티패스 포인트 충전을 통한 통합 결제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한편,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도시

경제와 과장 신호등)와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부천시가 목표하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스마트도시'구축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더욱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당첨된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시티패스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이용 확산으로 탄소 절감효과까지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용민/기자

충청북도, 2021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성료

48개 기업 참여 383건 4,999만 달러 수출상담

충청권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대전·충남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2021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충북C&V센터 및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기업들의 열띤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박람회는 3개 시·도(충북·대전·충남)가 순번제로 추진하며 올해는 충북도가 주관해 시·도별 각 16개사씩 총 48개사가 참가했다.

식기공품, 바이오·의료용품, 환경·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등 다양한 충청권의 우수 제품을 베트남 현지 구매자에게 선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박람회는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획으로 변화를 꾀했다.

먼저 4일간 진행된 화상상담회는 기업 수요에 따라 충북C&V센터에 마련된 화상상담회장 또는 각 기업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만 제품전시가 진행되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온라인 전시의 이점을 살리고자 지난 7월부터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코리아' 등 글로벌 B2B(기업대기업)플랫폼에 입점해 약 6개월 간 상시적으로 제품 판매를 진행했다.

또한 각 기업별 제품소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고정화/기자

충남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대급 수확

올해 총 26건 5347억원 선정, 국비 616억원 확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충남도 내 17곳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사업만 총 5300억여 원대로, 이 같은 성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4곳과 도시재생예비사업 13곳이 선정돼 국비 20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1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지방비 및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469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상반기에 선정된 9곳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총 26곳 국비 616억 원을 확보했으며, 매칭 지방비 및 부처연계, 민간투자, 별도 지자체사업비 등을 합하면 5347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올해까지 29곳이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각 사업에 국비 50%를



보조반아 총 62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성과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시군에서 준비 중인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시군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험 부족으로 발생했던 격차 문제를 해소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 선정된 17곳과 사업을 진행

중인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4곳은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아산시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SPace@DOG' △부여군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 △서천군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 13곳은 아산 3곳, 서천 2곳을 비롯해 천안, 공주, 보령, 논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각 1곳씩이다.

최정근/기자

대덕특구 - 연축지구 연결 교량 건설, 대전시 내년 첫 삽 뜬다

대전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덕특구 동축진입로 개설공사 기본설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전시가 국도17호선(신탄진로) 교량량 분산, 감전으로 단절된 유성구, 대덕구 연결, 대덕특구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2013년 구상을 시작한 사업이다. 이후 2016년 국가계획에 반영되었고,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면서 국비보조사업(45%)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845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교량 1개소(약 560m)를 포함한 1.3k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2022년 1월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이번에 확보한 5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하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대덕특구 동축진입로는 하수처리장 이전 적지 및 연축지구를 감편시키고속화도로, 회덕IC에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으로 관련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올해 국가 계획에 반영된 비례동-와동,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 사업의 교통수요를 증가시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지네거리에서 엑스포로, 아리랑로, 대전로를 경유해 연축지구까지 가려면 통행거리가 약 5km인데 비해 대덕특구 동축진입로를 이용하면 약 1.4km로 짧아지는 물론 도심 혼잡구간을 이용하지 않아 통행시간이 70% 이상 단축된다.

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본 도로 개설로 통행시간 절감 등에 따라 향후 30년간 약 203,413억 원에 해당하는 편익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분석됐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로 신설의 효과 외에도 지역 화합, 주변 개발사업 추진 등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조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새로운_

자치분권의 시작

#광고_

경기도의회_신청사

